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807호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산업]
택시호출 플랫폼
빈틈 노려라
우티·타다 총공세
08

Life

[라이프]
기후환경 챙기고
동물복지 지키고
착한소비 이끄는 유통가
L1

"차별보다 공존… 장애 인식 개선으로 더 나은 사회 만들고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안무에 국제 수화를 포함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안무에 포함한 국제 수화는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의미하는 동작으로 노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이 장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특히 어려운 시기,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공존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도 담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20.1%)과 2014년(27.4%)에 비해 올랐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5%에 그쳤다. 지속해서 장애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이에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지난 2018년 이전 해에 설립 이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과 만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 과정,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한 이유와 앞으로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식교육원 김 영 웅 원장

김영웅 원장이 한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며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

골형성부전증으로 선천적 장애
입학 거부 등 차별 이어진 삶 살아
장애 인식 개선 위해 교육활동 펼쳐

장애인식개선 콘텐츠·교재 개발 등
한국 사회 속 차별 해소 노력하고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차별과 편견의 연속

김영웅 원장은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선천적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1m 채 되지 안 되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서른 번이 넘는 골절과 크고 작은 수술로 신체적인 고통과 초등학교 입학 거부, 대학 입시부터 취업, 이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까지 김 원장이 살아온 나날들은 '차별과 편견'의 연속이었다. 김 원장은 차별과 편견이 이어진 삶에 대해 "힘겹게 지내왔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땅에서 키를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키를 재면 가장 큰 사람'이라며 자신을 당당하게 바라본다. 김 원장은 "장애로 인한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도전을 거듭하며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활동을 이어 왔다"며 현재의 삶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전을 거듭한 끝에 다양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애인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국의 학교, 기관, 기업을 방문해 쉼 없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펼쳐 왔다"는 말도 전했다.

◆'할 수 있다'…그릇된 인식을 바꾸다

김 원장이 활동하는 한국장애인식교육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성희롱 예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처럼 기업 대상 법정 의무교육 범주에 들어온 2018년 이전 해에 설립됐다.

교육원 설립 초기에는 장애인 강사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이후 장애인 강사가 겪은 사례 중심으로 장애 인식 개선,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교육) 초기에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강의에 집중했다. 여러 환경적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데에 큰 보람을 느꼈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며 교육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10여 년 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제화되면서,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다.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큰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그릇된 장애 인식을 개선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도 소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경기도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 강의를 나간 일이 있었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대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출구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배웅하던 때였는데, '선생님, 한번 껴안아 봐도 돼요?'라고 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팔을 크게 벌려 따뜻하게 껴안아 줬고, 뒤이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따스하게 제 품에 안겼어요."

그는 이 경험에 대해 "지금의 나처럼 아마 그 아이들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에서 강연할 때 겪은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이틀에 걸친 중소기업 강의 첫날 참석한 기업 대표가 다음 날에 '편리한 경사로'를 제작한 데 대해 "성과는 작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하고 대단한 노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처럼 작고 일상적인 노력이 하나둘 쌓이는 모습이 진정 더 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김 원장은 또 장애에 대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장치를 마련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정부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 총괄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 1호였다. 함께 약속했던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은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으나, 장애인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이 더 미뤄지면, 현재 장애계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향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시혜적 관점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에 나서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수립의 주역이 되어 OECD 평균 이상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설계할 수 있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차별과 배제보다 포용과 공존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길"

김 원장은 장애인식교육에 대해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과 관점을 1년에 하루, 단 1시간 강의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그 짧은 시간 내에 '인식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인 개인의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곱지 않은 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식개선 관련 공중파 프라임 시간대 예능 출연 ▲장애인식개선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및 방영 ▲장애인식개선에 도움 주는 교재 개발 ▲전 국민 수어 및 점자 교육 등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계에 따르면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질병과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선 안 되며, 어디에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동료,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이어 "차별과 배제보다 포용과 공존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길 희망한다. 그렇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불필요한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식개선을 앞장서 이끄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맨유에 0-3 완패
▲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 1부 데뷔골 터뜨려 /사진 뉴시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월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美 LA총영사관 영사 등에 민간인 채용

▲ 이다영, 그리스 진출 첫 라운드 MVP 수상
▲ 프로야구 SSG, 정의윤 등 15명 방출 …정상호는 은퇴 /사진 뉴시스